



광전매일신문

광산구 본덕동 평동 하천 “준설토 농지매립” 개발제한구역 보강토블럭 시공 ‘불법 의혹’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하천 준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본덕동 일대 농지에 무허가로 성토하고 보강토블럭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법률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산구 본덕동 229-3번지 외 여러 필지의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및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성토 및 보강토블럭 설치한 사실들이 밝혀져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

광산구(사업 공사업체)는 농지 소유주(A 모씨 등)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동의하여 하천 준설공사에서 발생한 준설토를 농지에 반입하여 매립한 후 논가림으로 양질의 흙을 상부에 복토하는 시행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지에 준설토를 성토하는 행위는 농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준설토 성토와 보강토블럭 설치 시 불법이 될 수 있고, 문화재 주변에서 이루어지면 현상변경 허가 없이 행하는 개발행위는 위법이며, 문화재 주변 경관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천 준설토에는 오랜 기간 쌓인 유기물, 중금속, 화학물질 등이 포함될 수 있어서,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수질

과 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준설토 처리 시에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처리 방법이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이 하천 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오염물질이나 유해 물질을 포함할 위험이 있어, 농지에 무분별하게 성토할 경우 토양오염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준설토의 성상 및 오염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적절한 처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무허가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평동 천 준설 사업에 따른 성토 및 보강토블럭 설치에 여러 법률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하며, 허가 없이 진행된 경우, 법률 위반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준설토의 오염 위험성도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산업폐기물로 의심되는 토사를 덤프트럭 10여 대 분량 이상이 광산구 본덕동 228(담) 주변 농지에 불법 매립했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다.

제보자 E 씨에 따르면 농지에 양질의 토사 대신 S 환경업체의 산업폐기물로 의심되는 불량 폐토사가 불법 반입되어 매립되었다 한다. 매립된 장소는 농지로,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로 의심된 매립토 성

분(중금속 오염 여부) 확인과 매립 장소, 규모, 관련 허가 여부를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불법 매립된 토사나 폐기물은 통상 육안으로도 검은색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며, 더욱이 준설토에는 중금속과 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 환경오염 및 농작물 피해 우려도 매우 심각하여, 불법 행위자들의 공모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들은 제보 접수 시 현장 조사 및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농어촌정비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법령을 위반할 수 있고, 무허가 개발행위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제기한 환경업체의 불량 폐토사 불법 매립 의혹은 즉각 환경 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조사와 허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오염 여부 검사 및 현장 점검, 법적 조치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은 농지와 자연환경은 물론 역사 문화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형사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기동취재부

‘광주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 시공사 등 6곳 압수수색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4명의 노동자의 구조·수습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당국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에 돌입했다.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오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원청인 구일종합건설 서울 본사와 광주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등 6개 업체 8개소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40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본사 사무실과 광주 현장사무실 등에서 도서관 건립사업 시공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사 과정에서 사전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고 조치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동바리 등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허 공법’으로 시공하면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또 원화청간 작업 지시 내역과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다.

경찰은 사고 직후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주요 관계자 8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처를 신청한 상태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담수사팀을 ‘광주대

경찰·노동당국, 사고경위와 책임소재 규명 원청 구일종합건설 등 6개 업체 압수수색 ‘특허공법’ 안전 조치 이행 중점 조사 대상 경찰, 전담수사팀 본부로 격상…62명 투입



김찬석 구일종합건설 대표이사가 13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 주변에서 브리핑 도중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뉴스스

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로 격상한다.

중대수사팀과 과학수사대, 강력계 피해자보호팀 등 36명으로 구성된 기존 전담팀에서 3개 수사팀을 추가 보강, 62명 규모로 운영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철골 구조물 기동과 보를 잇는 용접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접합부 결함’을 의심하고 있다.

수사당국도 구조물 접합 당시 시공 불량이었는지, 감리·시공사가 용접 품질 검사(NDT·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등을 집중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 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 35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뉴스스

광주시, 친환경차 2순환로 통행료 감면 1년 연장

전기·수소차 대상…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환경개선 효과 고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2순환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더 연장한다. 이로써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11년 동안 이어지게 된다.

이번 조치는 생활물가 상승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

계 부담을 줄이고, 환경 개선도 고려한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해왔다.

감면 대상은 사용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친환경자동차이며, 통행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감면 연장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지원 효과를 지속하는 한편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로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광훈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정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인종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